

## [ 경제 ]

## 늘어나는 가계빚 600조 돌파

## 가구당 3,819만원 사상 최고

韓銀 3·4분기 가계동향… 6월보다 신용·주택대출 중심 14조원 늘어

우리나라의 총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올 상반기 크게 둔화했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3·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

을)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보다 14조 2천31억원이 증가한 610조6천438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2006년 추계 가구수(1천 598만8천599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규모는 3천819만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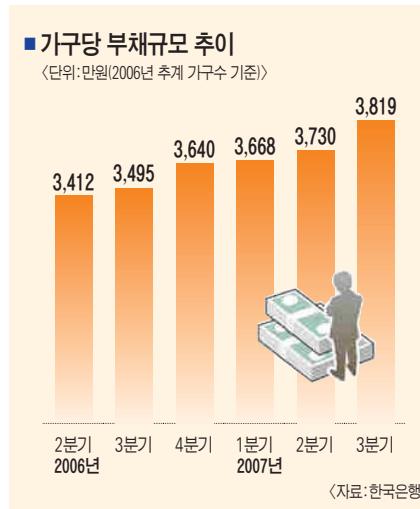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작년 4·4분기 23조1천459억원에서 6월 1분기 4조5천534억원으로 급감했으나 2·4분기(9조9천238억원)부터 점차 커지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액이 13조7천730억원으로 전분기 9조4천 451억원보다 커졌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강화하면서 6조114억원 늘어 전분기(2조1천886억원)보다 증가액이 3배 가까이 늘었다.

3·4분기 예금은행이 취급한 대출 가운데 주택용도 대출의 비중은 38.5%에 그쳤고 소비 및 기타 용도는 61.5%에 달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을 중심으로 5조549억원



늘어 전분기(5조6천565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여신전문기관 대출도 오토론 등 할부금융사의 대출로 분기별 1조7천 181억원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9천886억원이 증가해 전분기(8천242억원)보다 증가 폭이 조금다.

한편 소비자들의 외상구매를 나타내는 판매신용은 3·4분기 4천301억원 늘어 2·4분기(4천787억원)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연합뉴스

## 해외 건설 수주 380억弗 넘을듯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달까지 355억달러를 돌파해 올해 380억달러를 넘어 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진출 42년만에 이뤄진 연간 수주액 300억달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3일 '해외건설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길부 의원, 이용구 해외건설협회장, 조희의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해외건설 300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대형 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법산업, 삼성건설 등 10개 기업에 대한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또 해외건설 연간 300억달러 수주를 지속하기 위해 해외건설 진흥방안에 대한 논의와 견의사항 수렴 등이 이어졌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달러, 2006년 165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수주가 크게 늘면서 지난 10월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달까지 355억달러를 기록중이다.



미래 생활환경 가전 보세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07 월드베스트 디자인 교류전에서 '웅진코웨이, 2007 디자인 제인전'에 전시된 신개념 디자인의 정수기, 주방기구 소독기와

공기정정기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미래 생활환경가전 디자인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11월 수출 360억불 사상 최대

차·휴대전화 등 아세안·중동지역서 견인

일시 문화 조짐을 보이던 수출이 11월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본부가 3일 내놓은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늘어난 359억5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추석 효과를 고려해 9~10월 두 달을 끝은 수출 증가율이 11.3%로 산반기(14.4%)에 비해 뚜렷한 하강 조짐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온 민간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측면에서는 '서브 프라임 사태' 여파 등으로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답보상태이고 수입에서는 원자재 가격 암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압박 조짐이 나타나 앞길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지역별 수출동향을 봤을 때 11월 수출의 양호한 증가율을 선도한 것은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4위 수출시장 아세안이었다.

두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23.1%, 23.6% 씩으로 나란히 20%를 넘으며 월간 최대 수출을 주도했다.

## GNI 성장률 5.4%↑ &gt; GDP 성장률 5.2%↑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 해외펀드 투자 열풍 덕 5년만에 추월

해외펀드 투자열풍이 불면서 실질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년만에 뛰어 넘었다.

종전까지는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으나 해외 3·4분기에는 경제성장을 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질 GNI가 반짝 상승한 것은 해외펀드 열풍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본격적으로 호전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07년 3·4분기 국민총소득(잠정)'에 따르면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률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7%, 작년 동기 대비로는 5.4% 성장했다.

반면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기 대비로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1.4%)보다 소폭 하락한 1.3%를 나타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 실질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앞선 것은 2002년 3·4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교역 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순실은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해외이자·배당수익 등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순실 규모는 전분기 19조3천790억에서 19조4천 35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그러나 해외이자·배당수익 등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은 4천390억원에서 9천3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경



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반도체, 컴퓨터 기기 등 전기전자 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2.7% 성장했으며 건설업은 도로·항만 등 토목건설 감소의 영향으로 0.2%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운수창고업 등의 증가세도 확대돼 전기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수출기업 기술력 선진국보다 2.5년 뒤져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력은 선진기업보다는 평균 2.5년 뒤지고 후발국 기업보다는 평균 3.4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대기업 98개와 중소기업 353개 등 총 4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기업과 기술격차가 1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년(27.3%), 2년(18.0%), 5년(13.7%)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전자·전자산업의 기술격차가 평균 2.2년으로 가장 격차가 작았으며 가장 기술격차가 큰 산업은 플랜트 산업으로 3.5년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은 3.0년, 조선산업 2.9년, 기계산업 2.8년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후발국 경쟁기업과 비교한 기술우위 수준은 평균 3.4년으로 나타났다. 3년 정도 우위 있다고 답한 기업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5년(23.5%), 2년(15.1%), 1년(14.9%), 7년(12.4%)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조선산업이 후발국 대비 5.3년의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술경쟁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플랜트(4.2년)와 자동차(4.1년)도 4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조선(85.7%), 자동차(62.1%), 기계(55.9%), 전기·전자산업(55.1%)의 기업이 다른 산업보다 경쟁력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복직업전문학교	2007년 하반기 전자, 통신 훈련교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4	062-529-3000
OK워킹클럽 광주센터	SK 웨딩클럽 웨딩플래너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5	062-223-0805
ING생명	콜센터 센터장(총괄 업무 관리/실적/조직/인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05	062-519-2015
동양생명㈜-본사	[인계1위] 고객상담원200명남여모집[주5일, 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2/05	02-518-2769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6	062-369-0790
주일광이엔티	경리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7	062-954-2204
주리버트	정규직 영업지원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941-6452
도서출판 유니콘	문화센터 강사 및 지역 관리자(예비 강사와 관리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80-302-2244
선보하이텍㈜	[전남] 경력사원 및 신입사원 모집(기술연구, 조선분야)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51-260-5533
리더스클립	리더스클립 광주지역 영업부, 조리부 사원 채용의 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2-579-9500
현대환경산업㈜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이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10	011-9620-7300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모집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1	062-373-5346
월인컴	책임감 있는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3	062-225-2112
유목생명	Financial Consultant 신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236-200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정책금리, 기준금리로 변경

## 내년 3월부터 콜금리 급변동 방지

## 韓銀 통화운영체계 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내년 3월부터 콜금리 목표치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토대로 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된다.

또 콜시장의 불안으로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할 때 한은에 일정기간을 지급하면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도 도입된다.

한은은 3일 이런 내용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